

48

에스라의 귀환과 이스라엘의 회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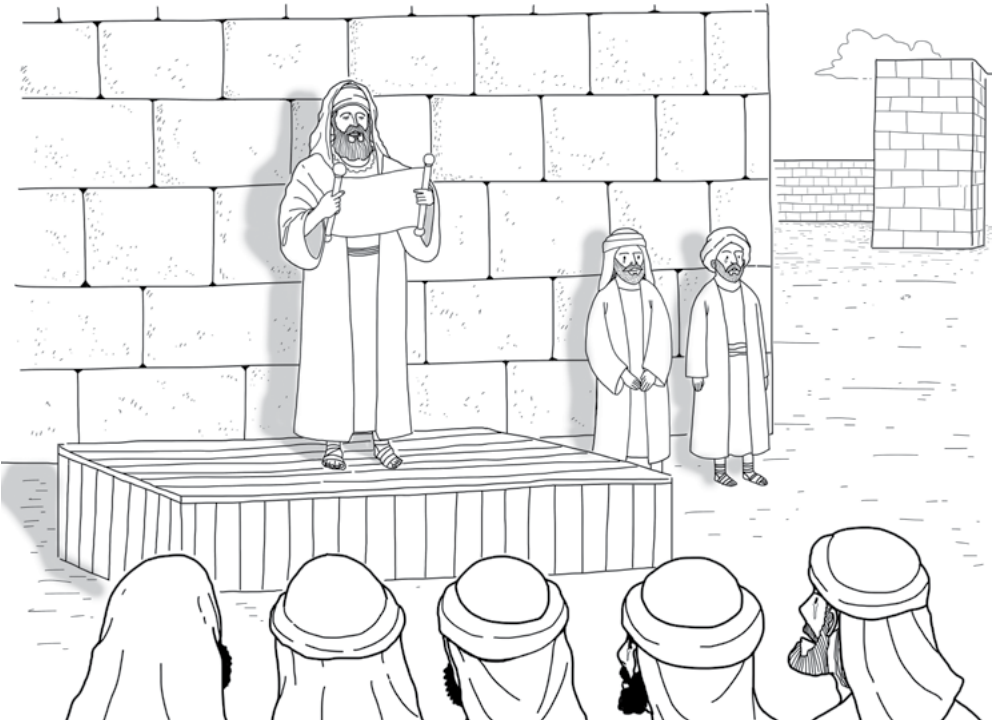
스 7~10장

찬송가 383장 (환란과 핍박 중에도), 찬양 191장 (내 안에 사는 이)

오늘 배울



1. 죄 가운데 무감각하게 생활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회개와 회복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과 배우는 일이 필수적이었음을 압니다.
2.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고난을 자초한 이들이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이제 너희 열조의 하나님 앞에서 그 뜻대로 행하여 이 땅 족속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 버리라 회 무리가 큰 소리로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스 10:11~12)



을 마음판에 새기기 (암송)

에스라가 여호와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다 (스 7:10)

For Ezra had prepared his heart to seek the Law of the LORD, and to do it, and to teach statutes and ordinances in Israel (Ez 7:10)

- 1 말씀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 혹은 구절에 밑줄을 그어 보세요.
- 2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시며 동시에 모범을 보여 주셨습니다. 학자 에스라도 예수님과 동일하게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 외에 이스라엘에게 보여 준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인지 암송 본문 중에서 찾아 적어봅시다.



에 맞게 내 생각 바꾸기

- 1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은 모두 3차에 걸쳐 이스라엘로 귀환했습니다. 유대인의 귀환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봅시다.

| 구분 | 1차 귀환 | 2차 귀환 | 3차 귀환 |
|-------|------------|-----------|------------|
| 시기 | BC 538~516 | BC 547 | BC 444~425 |
| 지도자 | | 에스라 | |
| 귀환자 수 | 49,897명 | 남자 1,754명 | 불확실 |
| 성경기록 | 스 1~6장 | 스 7~10장 | 느 1~6장 |
| 주요내용 | 성전재건 | | 성벽재건 |

2

에스라와 함께 귀환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태어난 나라인 ‘바사’를 떠나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스라엘로 귀환했습니다. 내가 만약 그 때의 유대인이었다면 이스라엘로 귀환하는데 마음에 걸림이 될 만한 것들이 어떤 것이 있을지 생각해보고 적어봅시다.

예) 내가 유대인이라면 바사(한국)에서 이스라엘(잘 모르는 중동의 어느 나라)로 돌아갈 때...

3

주님을 위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들을 포기해 본적이 있나요? 그 이유를 적어보고 분반 형제 자매님들과 교제해봅시다.

내가 포기한 것:

이유:

4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 버리는 것이 마땅하나 버리지 못하고 있는 죄 또는 습관들을 적어보고 앞으로 삶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다짐을 적어봅시다.

버리지 못하고 있는 죄(습관):

앞으로의 다짐:



을 삶에 적용하기

오늘의 말씀
(말씀 쓰기)

오늘의 기도
(감사 / 회개 / 간구)

일

시 34:18

의

시 51:17

화

잠 28:13

↑

스 8:21

↑

스 9:6

↑

요일 1:8

↑

요일 1:9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하나님께서 천사를 시켜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맨 처음 천사는 금덩어리를 찾다가 “아니야, 이런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충분히 가지고 있어.”하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한 움큼 쥔 금덩어리를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후 천사는 하나님께 바칠 귀중한 물건을 찾느라 세상을 두루 살폈지만 안타깝게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죄인의 부르짖음이 들렸습니다. 발끝을 들어올리고 살그머니 그가 꿇어 앉아 있는 곳으로 가서 조용히 지켜 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죄로부터 구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 회개와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옳지, 이제야 찾았다!” 천사는 금으로 만든 상자에다 눈물 방울을 담아 하늘로 가지고 왔습니다. 천사는 이 땅에서 제일 귀한 보석을 찾아 온 것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시 34:18)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며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시 51:17)



질문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구원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후 6:2)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그 누구라도 구원 받지 못하면 지옥에 갈 수 밖에 없고, 믿기만 하면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성령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구원 받지 못하면 순전히 자기 책임입니다.

이는 유대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였고 지금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들에게도 구원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 중에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받고 목사가 되어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 있는 유대인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휴거되고 7년 환난이 시작될 때, 전 3년 반 기간에 유대인에게는 구원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더 주어집니다. 이는 오직 유대인에게만 주어지는 기회입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돌아온 후에 민족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그 때에 14만 4천명이 구원 받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겔 39:25~26, 계 7장).